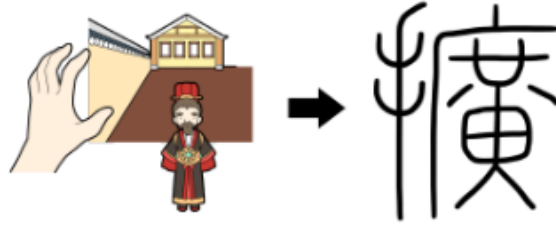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擴

넓힐 확

擴자는 '넓히다'나 '확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擴자는 手(손 수)자와 廣(넓을 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廣자는 '넓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넓다'라는 뜻을 가진 廣자에 手자를 결합한 擴자는 면적을 크게 넓힌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擴자에 쓰인 手자는 작업을 통해 대지나 면적을 넓힌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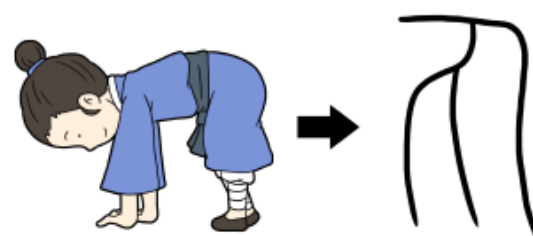
擴

소전

擴

해서

상형문자①



丸

둥글 환

丸자는 '둥글다'나 '둥글게 하다', '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丸자는 둥근 원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런데 글자를 만든 방식이 매우 재미있다. 丸자의 소전을 𠂔 보면 사람을 뜻하는 人(사람 인)자와 매우 𠂔 비슷하게 그려져 있었다. 다만 人자보다는 획 하나가 더 길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앞구르기를 하기 위해 양팔을 바닥에 짚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앞구르기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둥글게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丸자는 이렇게 사람이 뒹구는 모습으로 그려져 '둥글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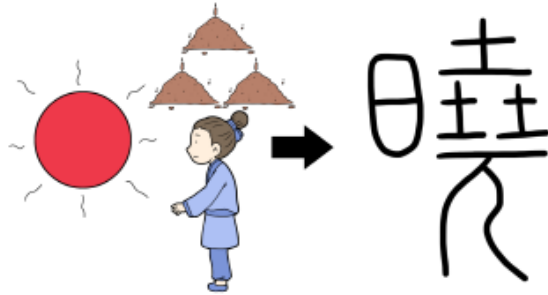
𠂔

소전

丸

해서

형성문자①



曉

새벽
효:

曉자는 '새벽'이나 '깨달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曉자는 日(해 일)자와 堯(요임금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堯자는 머리에 흙덩이를 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요→효'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曉자는 태양이 떠오르며 날이 밝아지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그래서 '새벽'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날이 점차 밝아지듯이 사람이 깨달아 간다고 하여 '깨달다'나 '이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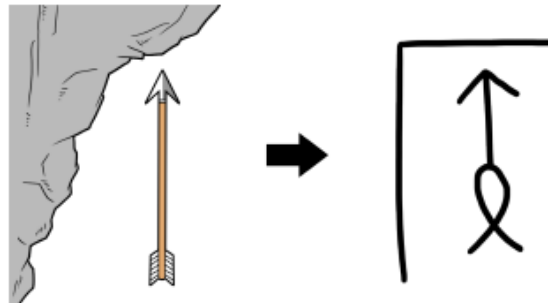
曉

소전

曉

해서

회의문자①



侯

제후 후

侯자는 '제후'나 '임금', '과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侯자는 人(사람 인)자와 厂(기슭 엄)자,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기슭에 화살이 꽂혀있는 𠂇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제후란 변방에서 일정 부분의 영토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던 군주를 말한다. 侯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일부에서는 활을 쏘는 실력으로 제후의 지위가 정해졌다는 설이 있다. 또 제후가 다스리던 지역은 이민족이 사는 변방에 있기에 이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표시하기 위해 영토의 끝을 의미하는 厂자와 矢자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𠂇

갑골문

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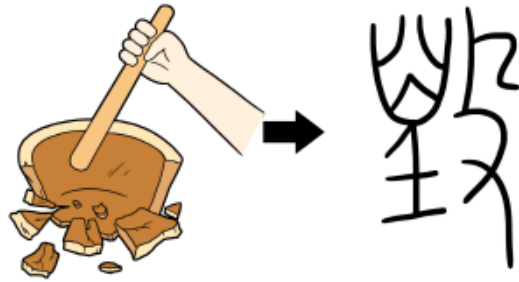
侯

소전

侯

해서

회의문자①



毀

힐 휘:

毀자는 '헐다'나 '부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毀자는臼(절구 구)자와 工(장인 공)자, 臼(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工자는 절구의 받침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절구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毀자는 절구통을 깨부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절구가 아닌 밥그릇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해석에는 차이가 없다.

毀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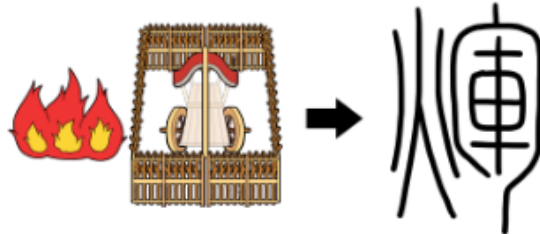
毀

소전

毀

해서

회의문자①



輝

빛날 휘

輝자는 '빛나다'나 '비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輝자는 光(빛 광)자와 軍(군사 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火(불 화)자가 들어간 輝(빛날 휘)자가 쓰였었다. 두 글자 모두 '밝다'라는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소전에 그려진 輝자는 군 진영을 밝히던 횃불을 표현한 것이고 輝자는 횃불보다 더 밝은 빛을 뜻하기 위해 光자가 쓰인 글자이다.

輝

소전

輝

해서

회의문자 ①



携

이끌 휴

携자는 ‘이끌다’나 ‘휴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携자는 手(손 수)자와 隹(살찐 고기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隹자는 먹기 좋은 새를 활로 맞혀 잡았다는 의미에서 ‘살찐 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잡은 새를 뜻하는 隹자에 手자를 결합한携자는 사냥한 새를 허리춤에 걸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휴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携자에는 ‘잇달아 있다’나 ‘이끌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携

소전

携

해서